



12면

변화의 10년, 도약의 1년... 다시 시민과 함께

2025 6 27 금 ( 6 3 ) 제377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을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국민주권정부 새로운 시대... 전북자치도, 지역·연고 국회의원들과 손 맞잡다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전북국회의원 예산 정책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같은 날, 국회본관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전북연고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이학영 국회 부의장, 이원택 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 전북 도약 위한 협력, 국회 중심으로 본격

도,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주요사업 협력방안 모색

전북 연고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 열고 국정과제 반영 논의

전북의 도약을 위한 협력이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국정과제 반영, 주요 현안 입법 대응을 위해 전북 국회의원 및 연고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협의회는 오전 전북 국회의원과의 예산정책협의회, 정오 전북 연고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로 이어지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진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5명이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2026년도 국가예산 반영이 필요한 전략사업들을 소개하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산업 기반 강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도정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핵심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이어졌다. 또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국회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전주 하계올림픽

대회 유치지원 특별법 제정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입법 지원 및 제도 개선 과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공공의대설립법, 전북특별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구축에 국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북권이 정부의 광역교통 계획에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및 국가계획 반영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정오에는 국회본관에서 전북연고 국회의원 14명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간부진, 이원택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참석한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북 건의과제 공유, 2026년 국가예산 기재부 대응 현황, 주요 현안 입법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익산서 호남권 최초 코스트코 8월 착공

진입도로 공사 시작으로 본격 개점 준비 들어가

익산시가 호남권 최초로 세계적 유통 브랜드 '코스트코'를 유치하며 광역 경제권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6일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이 최종 확정돼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점 준비에 들어간다"고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이번 유치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과거 왕궁물류단지 내에 입점이 논의됐었지만 계약 해지 통보로 한 차례 무산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시는 끝까지 대안을 검토하고 기업과의 끈질긴 협상을 이어간 결과, '익산 입점'이라는 결실을 이끌어냈다. 정 시장은 "단순한 유통시설 유치를 넘어, 익산이 광역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트코 익산점이 개점되면 연간 수백만 명의 지역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함께 인근 상권의 동반 성장도 기대된다. 시는 대형 유통시설 입점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전 영향 분석을 철저히 시행하고, 지역 상권과의 실질적 상승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6·1 지선 당시 교수 폭행 의혹 부인 혐의 대법, 2심 원심판결 확정... 상고 기각  
서 교육감, 유감 표명... "전북교육 응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폭행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입증할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정확한 쌍방 폭행 가능성이 있고, '전혀 없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관련 법리 오해도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날 판결 직후에 낸 입장문을 통해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학력 신장,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 A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수업 혁신, 지자체,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면서 "그 결과 취임 이래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됐고 올해에도 전북교육청은 20개 평가지표 모두를 달성해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했다. 서 교육감은 "밖에서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교육 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재선거 없이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장은성 기자

## 민주, 예결위원장 한병도·법사위원장 이춘석 의원 내정

오늘 본회의 열고 선출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에 3선의 한병도 의원(익산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내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출을 부탁드린다"



한병도 의원



이춘석 의원

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내정된 상임위원장 후보자들

은 국회 본회의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여야 협상 등의 변수가 없을 경우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마지막 날(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인 기획재정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매일 캠페인